

정보처리용역의 선두주자

(주)에스·티·엠

기술을 배우자
배우고 나서 세계로
나가보자



▲「樂業樂土」의 믿음을 만들어 낸 金永泰 사장

력 키금성그룹이 세계 최대 정보처리 용역회사인 미국의 EDS (Electronic Data System Corporation)와 합작, 작년 1월 자본금 36억원으로 출범한 (주)에스·티·엠 (Systems Technology Management Corporation).

STM의 설립작업은 지난 86년 1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력키금성그룹은 그룹내 전산시스템의 통합 필요성을 인식, 그룹 조정기획실 내에 E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합작사 조사단을 미국에 파견, EDS와 접촉하게 되었다. 그다음 여러차례의 교섭을 거친 후, 86년 10월 정부의 외국인투자 인가를 얻었다. 지분 비율은 50 : 50. 이는 「기술을 배우자. 배우고 나서

세계로 나가보자」는 밑바탕에서 이루어진 결단이었다.

EDS는 1962년에 설립된 후 84년에 제너럴모터스 (General Motors)사가 인수한 세계 제일의 情報處理 용역회사로, GM의 용역외에 금융·보험·제조·국방·행정 등에서 독자적인 통합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세계 32개국에 4만 8천여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보처리 용역에 대한 制度·理解와 認識 등 주변여건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고객이 만족할만한 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있다」고 국내 최초로 첨단산업인 전문 정보처리 용역회사로 출발한 STM의 金永泰사

장(55)은 선두주자로서의 고민을 이렇게 토로한다.

STM의 주요 사업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진다. 단기는 력키금성그룹사 전체의 전산업무를 STM의 통합전산실(IPC) 체제로 전환·이전시키는 것이며, 중기는 그룹차원을 떠나 국내업체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는 대규모 통합전산실과 통신망체계를 이용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STM은 다음 8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정보처리시스템 통합(Systems Integration)이다. 이는 상이한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개의 전산실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 인력의 중복투자 등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통합기술과 전국적인 통신망을 이용하여 고객의 경영환경에 적합한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준화(Standardization), 대형화(Scale-merit), 전문화(Specialization), 체계화(Systematization)의 4S를 통해 전산의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둘째, 전산실 수탁관리(Facilities Management)로 축적된 기술인력과 대형 컴퓨터 등의 제반 정보처리에 필요한 자원을 이용, 독특한 계약방식인 장기

STM의 통신망 구성계획



▲ 고객을 위해 항상 연구·개발하는 기술진

고정금액계약에 의거하여 정보처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경영성과를 향상 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세째, 소프트웨어 設計 및 開發(Software Design & Development) 작업으로 여기서는 고객의 주문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한 시스템의 계획에서 설계·개발·설치까지의 모든 단계를 수행해 주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네째, 원거리 정보제공(Remote Computing Services)으로 통합전산실에 설치된 대형 하드웨어에 고객의 단말기를 연결하여 STM의 소프트웨어를 활용,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처리에 이용함으로써 고객은 컴퓨터 도입에 따른 투자를 피할 수 있으며, 특히 대형 시스템 이용에 따른 규모 경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정보처리자원 대여(Demand Processing)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정보통신망 등의 모든 정보처리 자원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해 준다.

여섯째, 정보통신망 서비스(Netwo-

rk Services)로 동사의 정보통신망 설계기술과 전국적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각부서를 상호 연결하여 고객의 정보통신 능력향상을 가능케 하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기술을 제공해 준다.

입곱째, 공장자동화(Factory Automation)로 CAD/CAM/CAE에 관련된 제반기술을 제공함은 물론 로봇,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장비를 설치하여 공장 전체의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객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고품질의 제품생산에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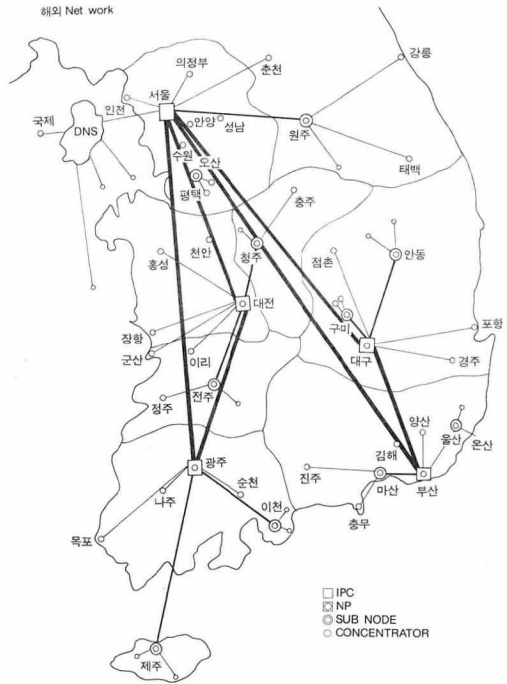
여덟째, 기타용역으로 정보처리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컨설팅, 고객의 현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 보수와 사무자동화에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

공하고 있다.

위 업무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STM은 여의도 쌍둥이빌딩에 통합전산실을 두고, 주전산기로 금성(히다찌) M680 시스템, IBM 3090 시스템, NAS AS/XL80 등 3기의 초대형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다.

정보처리의 생명은 고객의 재산인 데이터가 내외적 요인에 의해서 外部로 유출되거나 파괴 또는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STM은 최첨단의 보안관리용 소프트웨어 및 안전관리 施鍵 장치, 그리고 종업원의 철저한 보안의식을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

同社가 쓰고 있는 정보처리 자료취급 통제용 소프트웨어인 ACF2는 美



국방성이 정보처리시 사용하는 보안용 소프트웨어로서 데이터의 주인인 고객을 제외하고는 STM 직원을 포함한 그 누구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처리절차상 보안을 위해서는 비밀취급인가자를 지정하고, 통합전산실 출입을 통제하는 카드-키-엑세스 시스템 등을 통해 데이터 입출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장치로는 유사시 통합전산실을 보호하기 위해 할론 소화시스템을 비롯, 누수·열·연기 감지 경보시스템 등 최신장치를 통해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천재지변에 대비, 사본(Back-Up) 데이터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두뇌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월계관을 쓸 수 있는 분야가 정보처리 산업이기에 STM은 계속되는 교육을 통해 정예요원을 길러내기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STM이 현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신입사원 교육을 비롯하여 SED코스·관리자교육·CBI(Computer Based Instruction)교육 등 10여가지.

이중 STM이 가장 신경을 쓰는 교육은 EDS가 개발한 프로그램인 SED(System Engineering Development). 이 코스는 합작전 전산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10주간에 걸친 테스트 결과, 이들로부터 「과제가 많아 애를 먹었지만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과제를 푸는 의지력을 길러준다. 표준화된 기술교육을 통해 전문기술 및 지식을 제공받았다」는 답변을 얻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은 금년 1월부터 STM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고객의 사업에 대한 지식 및 그것을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춘 전문인(SE: System

Engineer)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통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각 고객사에 배치되어 9~12개월동안 중요한 비즈니스 기술 및 고객사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 고객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센터에서 10주에 걸쳐 SE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전산



기술을 습득하는데 강의 및 철저한 과제 중심으로 진행된다. 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배운 지식, 기술은 실제 현업 상황에서 1년에 걸쳐 응용하는 과정으로 3단계를 성공적으로 이수하여야만 고객의 업무 전산화를 담당할 수 있는 SE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STM의 고객사로는 금성사를 비롯한 28개사, 50개 전산실이며, 종업원은 임원 7명, 관리자 135명 등 모두 950여명으로 이중 외국인인 제리 또 오슨(Jerry Thorson) 부사장을 포함 15명이다.

이들을 이끌어 가는 金永泰 사장은

지난 62년 금성사에 입사, 금성계전 부사장·금성사 부사장·기획조정실 부사장 등을 거치며 26년간 럭키금성그룹에 초지일관으로 몸을 담은 럭키금성맨. 金사장은 한 우물을 파오며, 스스로 만든 믿음이 있다. 「樂業樂土」가 그것이다. 業이라는 단어에는 일·업보·숙명·인과응보 등의 의미가 함

축되어 있으며,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재미를 찾으면 현 세상이 바로 樂土가 된다는 것이 金사장의 해석. 일을 즐기는 金사장의 스타일은 여기서 연유되는 것으로 보인다.

역무제공자로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金사장은 「기술적 진보에 대비, 각종 신기술의 연구·도입·적용에 대한 규제의 자율화 보장이 필요하다. 전산처리의 궁극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고객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가까운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법적 배려가 요청」 된다고 강조한다. ♣